익숙함과 새로움

(고전2:1~5)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익숙함과 새로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비엔날레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시죠?
이태리어로 '2년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제적으로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시회에 붙이는 이름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2013년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려 3,500여점에 달하는 많은 공예품들이 전시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익숙함과 새로움'입니다, 영어로 'Something Old, Something New'
그리고 모토는 '익숙한 기쁨, 새로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익숙함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았더니, 새로움과 익숙함,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기본적이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기본적인 욕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면, 그분들의 설명에 따르자면,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새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1세기 중국에 자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자기가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이 자기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자기네 식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새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돼버립니다.
말이 좋아 익숙함이지 좀 지루해지고,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익숙함과 새로움이 상호지양관계를 형성하면서 문화의 순환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지루해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추구해 들어가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또 새로워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문화를 순환시키게 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결국은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과 거의 같은 의미로 새로움과 익숙함을 해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익숙해졌고 익숙함을 넘어서 지루해지고 식상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익숙함을 지양해버리는 그런 변증법적 논리로 만들어진 새로움이라는 건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과 지루함과 식상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가짜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익숙함과 새로움이라는 것은 변증법적 지양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익숙함은 새로움을 없애버리고, 또 새로움은 익숙함을 없애버리는 이런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익숙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위에 새로움이 병존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움이고, 이렇게 익숙함은 익숙함대로 유지되어가고 있으면서 느끼는 새로움이 진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꼭 익숙함을 없애버리고 나서야 새로움이 느껴지는 것, 이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한 삼 년 지나면 아내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으로 아내를 보았을 때 전신에 전기충격 같은 느낌이 오는 그런 신선한 충격이라는 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움을 위해 결혼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의 익숙함, 익숙해진 관계가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유지되는데,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익숙함이 유지되는 동안에,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새로움이 진짜 새로움이고, 이 새로움이 바로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새로움이고, 십자가에 대한 태도도 이 새로움과 익숙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직접 연관이 돼있다는 얘기에요.

자, 여러분!
이 익숙함과 새로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어떻게 신앙에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는 정말 모든 신앙인에게 무슨 마그나카르타 같은 그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설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1년 6개월 동안만 그랬겠습니까?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즉, 고린도교회에서 사역한 후 5,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도 사도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그 작정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평생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알고 전하고, 설교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모든 설교자,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신자들도.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작정한 사도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인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렇게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지도 못하고, 작정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십자가만을 붙잡고 실제로 사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만을 붙잡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려고 한 사람은 알 거예요.
십자가만을 붙잡는 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십자가만을 붙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나타

나는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읽은 이야기인데, '십자가사건은 빨리 지날수록 좋은 것이고 빨리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그렇게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 말하지 않더라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설교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의 의미는 알면 되는 것이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므로 그래서 내가 처음 믿을 때 십자가를 알고 죄 사함을 받았고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졸업한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 잠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24시간 일 년 365일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못 붙잡는 가장 큰 이유, 즉 우리 마음으로부터 십자가를 붙잡는 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움에 대한 욕구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얘기가 서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를 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나서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아테네에서 왜 사도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을 가만 보면,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일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헬라사람들이 철학을 한다는 것, 학문이 발달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기존의 학문적 업적이 누적된 현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학문의 생명입니다.
즉, Something New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껏 자기들이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는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기대를 사도바울이 캐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우상제단을 보고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고, 십자가라는 얘기를 살짝 옆에다 밀어놓고, 나름대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버렸습니다.
헬라사람들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내가 처한 기존의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지금 기존의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악 된 자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악 된 헬라인들의 새로움에 대한 추구방식을 그대로 답습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새로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존의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상태가 지루해졌기 때문에 새로움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새로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존의 상태가 지루해졌기 때문에 추구하는 새로움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충족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만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모든 다른 앎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여기에 진정한 새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바울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를 붙잡는 익숙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새로움이 경험되기 전에 십자가를 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교한 말로 문제의식을 자극해서 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혜로운 말로, 인간의 언어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전한다는 말은, '당신들이 돈이 없으니까 인생의 루저가 아니냐?' 즉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조 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가난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놓인 이 땅에서의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혹하는 말씀이고 세상적 지혜의 말씀입니다.
기존의 상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거기에 기독교가 답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불러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심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약속을 묶어두셨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십자가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 세상에 뺏겼던 마음이 회수될 것이고, 회수된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이 육체적으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 육체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 세상의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대상으로 느껴지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아버지가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남편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적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이 아버지와의 친밀해지는 깊이는 무한히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무한히 깊어지고 무한히 새로워지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는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열 개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던 자가 20개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개 친밀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면 또 30개 친밀하게 됩니다.
30개 친밀한 자가 십자가를 보면 또 새롭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익숙함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농도가 짙어지고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농도가 짙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친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

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니까 십자가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은혜를 찾고 새로운 은총을 찾아갑니다, 십자가는 일단 옆에 모셔두고.
자꾸 이 세상의 지식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만담 식으로 설교를 하고 Storytelling 이라고 해서 온갖 세상의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감동도 있고 때로는 예화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과 그 감동으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일반 영화를 봐도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설교시간에 받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은데도 주어진 감동은 다 문학적 감동이고 휴머니즘적인 감동이고 그런 것이지, 진짜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화를 새로운 걸로 혹은 설교방법이 새로운 것은 없을까, 기독교를 좀 새롭게 해석하는 게 없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해석을 하면 새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두가 십자가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로원 복음을 듣는 사람을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떠냐 하면, 몇 년이고 계속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제로원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그렇게 자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방문하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붙잡고 붙잡고 있는데 별 게 없거든요,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진 사람은 제가 아침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 더 친해지지 않고,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우선적인 현실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십자가 얘기를 또 들으면 ‘아유, 저 목사는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움은 위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도 천국에서 하는 일은 영원토록 무궁하신 하나님의 새로움을 우리가 영원토록 새롭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친밀함의 관계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때 계속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고, 십자가를 계속 붙잡는 익숙함이 지속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거실을 바라봅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소파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싸구려 소파에요, 모든 가구가 조야합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거실을 바라볼 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싸구려 가구가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거실이 됩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사물이 영적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이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쥐 소금 녹이 듯이라도 깊어지고 새로워질 때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모든 현실, 아내도 자식도 가구도 나무도 이 형편없는 집도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면서 거기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에요.

십자가가 주는 새로움은 기존의 땅의 상황에 대한 지루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움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새로움으로써 기존의 땅의 상황 자체도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좀 지루하더라도, 좀 식상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던 그 사도바울의 선언을 믿고, 붙잡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진 상태에서 이 땅의 기존의 모든 상태가 그대로인데도 완전히 새로운 상태인 것을 날마다 느끼시면서 사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조건이 지루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죄악의 열매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내게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

시고, 날마다 이 새로움이 반복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이 땅의 삶의 조건도 온전한 새로움으로 날마다 맞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